

# 막의는 갑자기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 달마 이야기



### (3) 들통난 왕자의 정체

막의는 종종히 돌을 가로질러 선방을 찾았다. 돌 앞에는 보리수 한 그루가 우뚝 솟아 있었다. 막의는 보리수를 무척 좋아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의 고행 끝에 마침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일찍이 그녀를 때로 시켰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무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 즉 곧은 줄기와 맑은 기운으로 운기가 감도는 일체는 그녀를 황홀케 했다. 보리수의 푸른 잎을 보고 있으면 순박함과 고결함 그리고 탁속의 경지를 느낄 수 있었다. 보리수의 그런 특성은 그녀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이기도 했다. 게다가 '보리'라는 두 글자가 들어있는 나무 이름은 사형 '보리'다라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피부에 와 닿는 가까움을 느꼈다. 어떤 땀 보리수를 사형의 화신인 양 착각하기도 했다.

막의는 보리수 옆을 지나면서 발타대사가 한 말을 새삼스럽게 곱씹었다. 대사에서 사형을 선방으로 옮겨준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상념에 빠졌다. 때마침 보리다라가 불만스런 표정으로 선방에서 뛰어나왔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은 정면으로 부딪혔다.

보리다라는 황급히 물러섰다. 너무나 미안한 일이었다.  
"사매... 내 불찰을 용서하십시오!"  
그는 합장하며 사과했다.

### 마음 문을 닫고 있었다

황망하기는 막의도 마찬가지였다. 갑작스런 일애 두 불이 발개졌다. 보리다라의 사과에 무슨 달로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러나 곧 평소 모습을 되찾았다.  
"오허려 제가 주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 잘못인데 사형께서 사과하시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한때, 사형께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셨습니까?...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나오시다니..."

사실 두 사람이 이처럼 부딪친 일은 한번도 없었다. 보리다라는 무슬이 출중한 막의가 자기를 피하지 못한 것을 내심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 짐작했다.  
"사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소?"  
"어..."

막의는 보리다라를 건넌면서 말을 이었다.  
"대사님의 명을 받들어 사형의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 드리려고 왔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보리다라를 보는 순간 그는 몹시 당혹스러웠다. 열여섯 살도 안된 보리다라가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보석들은 급할 때 요긴하게 쓰라고 부왕(父王)께서 사람을 시켜 몰래 보내온 것이었다. 궁성을 떠날 때 보리다라는 물에 지닌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생활하는 데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불

문(佛門)의 자비로움에 늘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이 보석이 사람의 눈에 발견될까 싶어 무척 신경을 썼다. 만약 그렇게 되면 왕자의 신분은 탄날 뿐만 아니라 일대 소란이 벌어져 공부에 방해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요사채의 침대 밑에 깊숙이 감았다. 평소 행자승들이 청소할 때도 그곳만은 지나치는 것을 확인까지 한 터였다. 이렇게 사매가 보리다라를 들고 오리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보리다라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선방으로 옮겨 준 까닭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발타대사를 찾아가서 다시 요사채로 돌려 보내 줄 것을 부탁하러던 참이었다. 아직은 여러 사형들과 함께 수련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대사께서는 모든 비밀을 아신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 "대사님의 명을 받들어 사형의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매도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표정이었다.

그가 열려하던 일이 마침내 터져 버린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그저 망연 자실할 따름이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항시국 같은 큰 나라의 왕자는 작은 나라의 왕과 같은 신분이다. 어찌 합부로 가까이 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서슴없이 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신분이 드러나 이곳 사찰 안팎에 소문이 퍼지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 할 것이고 만 나기조차 두려워할 것이 뻔하다. 평소 그의 잘못을 거러짐없이 지적해 주던 사매마저도 그를 경원할 듯 싶어 안타까웠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은 전혀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이었다.

보리다라는 막의를 훑듯 보면서 아무 말도 없이 보리다라를 받았다.  
"사형! 당신은..."

이미 내막을 알고 있는 막의는 여전히 의혹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큰 나라의 왕자라면 무엇이든 부족한 게 없을 것이고, 근심걱정 또한 없을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휘황찬란한 보석을 몸에 걸치고 옷사랑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 아닌가. 한때, 무슨 까닭으로 속세를 버리고 이곳 깊은 산 속 절간으로 들어온 것일까. 만약 그가 정말 왕자라면 그를 향한 그녀의 마음도 여기서 접을 수밖에 없다. 천박한 평민

계급의 딸이 어디 감히 왕자를 마음 속에 품을 수 있던 말인가.

보리다라는 막의의 이런 마음 속 흐름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결코 목석이 아니었다. 그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평민의 딸이라곤 하나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구태여 그것을 의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그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애정이 묻어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미 오래 전에 고(苦) 집(集) 멸(滅) 도(道)의 사제(四諦)와 팔정도(八正道)를 굳게 지키기로 다짐한 그였다.

### 부끄러워 고개숙인 막의

사실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성군이 되어 백성에게 선정을 베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를 잘 하더라도 그것이 만백성을 제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불법(佛法)이 무량하여 진리의 비를 두루 뿌려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세속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진지하게 수행에만 전념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보리다라는 왕자라는 신분이 노출된 이상 여기서 더 머무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막의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떠들떠들 말문을 열었다.

"사매! 그대가 이미 모든 것을 알았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소... 다만, 일부러 속이러한 것은 아닌 것 같아 왔습니다"

"사형은 정말로 왕자신가요?"  
막의의 말투는 이미 극존칭으로 바뀌어 있었



◇하백련(1891~1977)작 <달마도>, 광주 문장호 소장.

들의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온몸은 종소리 속으로 녹아들어 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사매!"  
보리다라가 정적을 깨다. 그리고 막의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이렇게 진지하게 그리고 뚫어지도록 쳐다본 일은 일찍이 없었다. 막의의 얼굴도 달아올랐다.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나는 여기서 오래 머물면서 사매와 함께 무술을 닦고... 경전 공부도 할 작정이었소... 그런데 내가 왕자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소... 왕자라는 나의 신분 앞에 모두가 허리를 굽히는 천박함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소... 심지어 발타대사조차도 특별 대우를 하시다니... 분명, 이전 아닌 것 같은데..."

### 幻影속에 빠지는 느낌

"그게 뭐 어때서요? 본래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가요?"

막의가 웃으면서 대꾸했다.

"본래 이래야 된다고?"

보리다라는 큰 소리로 웃었다.

"왜 이래야만 되지? 사매! 일이 이렇게 된 바엔 나는 역시 궁으로 돌아가서 왕자노릇이나 할 수밖에 없겠어... 번거로운 일이지만... 이 보석은 대사님께 전해 주었으면 좋겠어... 절 안에서 피우는 향을 사는 데 쓰시도록..."  
"궁성으로 돌아가시려고요?"

막의는 건넌받은 보자기 속의 보석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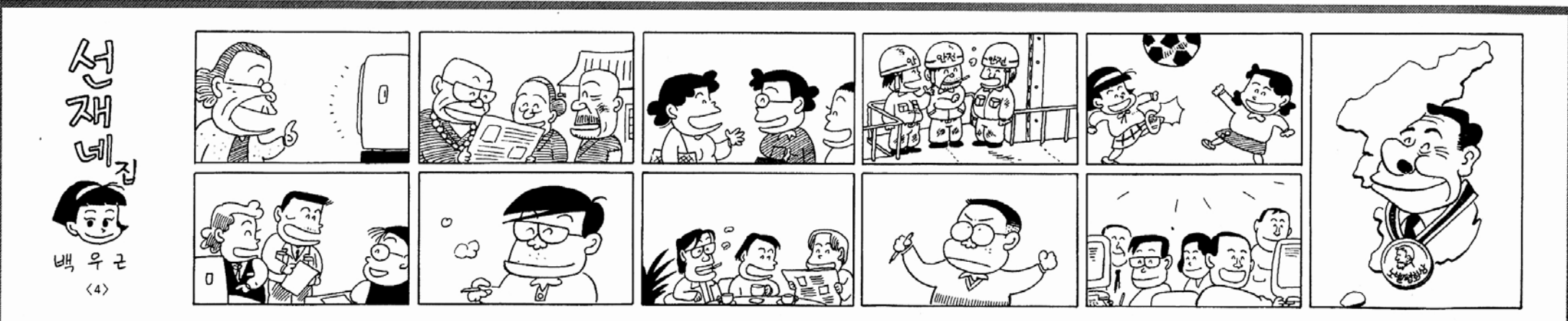
"본래 이래야 된다고 하지 않았소?"  
보리다라는 가슴을 찢히면서 짙은 큰 소리로 웃었다.

"사형! 우리가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지도 3년이나 되었으니... 가시는 길에 좀 바래다 드려도 괜찮겠지요?"

"좋아요! 고맙소!... 사실 그동안 나의 공부보다 이나마 진전을 이룬 데는 사매의 도움이 컸소...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보리다라의 얼굴에는 보기 드물게 정다운 기운이 감돌았다. 막의는 그런 표정을 보자 행복했다. 정겨운 웃음이 그녀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보리다라가 걸음은 무척 냉정해 보이지만 속으로 다정다감한 인간미의 소유자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우뚝 솟은 보리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앞에서 있는 보리다라를 다시 한번 올려보았다. 나무가 사람이고 사람이 나무인 듯 환영(幻影) 속에 빠지는 느낌이었다.

하늘은 까마득했다. 어느덧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선방 앞 언뜻의 맑은 물은 저녁노을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다. 선방 주변을 걸음이 새고 있는 숲엔 온갖 새들이 지저귀며 풍지로 찾아 들었다. 선경이 따로 없었다. 이곳이 바로 선경이다. 선방 앞에 서 있는 보리다라와 막의의 모습은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 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나 쓰는 흉내만 낸 돌침대가 아닙니다. 최고급 천목, 최고의 기능 **리빙스톤 돌침대** 는 선택받은 귀하만의 것입니다.

- ▶ 광경 뛰면서 온돌병처럼 쓰는 리빙스톤 돌침대!!
-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겠습니까?
- ▶ 좋은 잠자리의 잠이 보약입니다.

■ 침대 주시름 놓는 친구요? 천도, 매트, 베개, 승기에서 원전 해방  
■ 아직도 침대에 잠겨있습니까?  
온도는 자유롭게 - 4계절용 돌침대  
■ 동맥에서 원복의신, 몸이음이 좋아지는  
베개는 느낌이 없고, 허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화조

리빙스톤 (옥스톤)

101 싱글보드 (옥스톤)

※ 단체구입은 직접 상담받습니다. ☎ 02)424-9427/2203-7821

리빙스톤 돌침대의 효능...

- ◆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 ◆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 ◆ 초정파의 물리치료 기능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원전 제거하고, 수백을 차단하였습니다.
- ◆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 ◆ 한달 전거리는 1200원 인위(1일 10시간 사용 기준)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 ◆ 고유가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 ▶ 특허받은 전자파 원전 제거장치 침대에 설치

아침건강 - 베개가 좌우합니다!  
혈액순환 촉진으로 머리를 맑게하는 **옥색베개**

35,000 → 12,000원 (택배비는 별도)

※ 단체주문 환영 ※